

인니 스메루 화산 분화 최고 경보 발령...2천명 대피

1년만에 재분화...화산 경보 최고 수준 4단계로 격상 지난해 51명 사망·수백 명 화상·이재민 1만명 발생

인도네시아 동자바주(州)의 스메루 화산이 1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 당국이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2천 명이 넘는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BP)은 4일(현지시간) 오전 2시 46분 스메루 화산이 화산재를 내뿜는 등 분화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폭발로 산 정상에서 1.5km 높이까지 화산재를 뿜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용암이 흐르기도 했다.

또 하늘로 치솟은 화산재로 인해 스메루 화산 주변은 아득게 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인터넷이 끊기는 등 통신 장애

도 발생했다. BNBP는 "오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8번의 폭발이 감지됐다"며 3단계였던 화산 경보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했다.

또 분화구를 중심으로 8km 이내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화산재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13km 떨어진 지역까지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반경 5km까지만 위험지역으로 선포했다가 화산 분화가 계속되고 용암까지 흐르면서 위험지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소 6개 마을에서 약 2천 명의 주민이 11개 대피소로 옮겨졌으며,

주민들에게는 오염된 공기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막기 위해 무료로 마스크가 배포됐다고 BNBP는 전했다.

현지 폭포스TV는 긴급 뉴스를 내보내며 화산을 피해 현지 주민들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스메루 화산의 대규모 분화는 정확히 1년 만에 다시 발생했다.

지난해 12월4일에도 스메루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가 인근 마을을 뒤덮었고 이 일로 51명이 사망했다.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을 입었고 1만 명이 넘는 사람이 대피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른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있어 활화산이 120여 개에 이르고 지진도 잦아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한다. 2018년에는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사이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폭발하며 쓰나미를 유발, 400여 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동자바주(州) 루마징의 칸디푸로 마을회관에 스메루 화산 폭발로 주민들이 대피해 있다. 이날 스메루 화산이 분화를 시작하자 당국은 화산 경보를 최고 단계로 높이고 인근 주민 2천여 명을 대피시켰다. /AFP=연합뉴스

러시아 해안에 바다표범 2천500마리 사체 밀려와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카스피해 바다표범 2천500마리의 사체가 러시아 해안으로 밀려왔다고 dpa 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바다표범 2천500마리의 사체가 러시아 남부 이슬람 자치공화국인 다게스탄 해안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날 700마리가 먼저 발견된 이후 확인된 사체의 수가 계속 늘고 있어 향후 폐축을 맞은 바다표범 개체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dpa 통신은 전했다. 카스피해 바다표범의 사체 2천500마리는 지난 10년간 바다표범 대량 폐사 사례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고 러시아 당국은 설명했다.

세계 최대의 내해(內海)인 카스피해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에 둘러싸여 있다.



러시아 남부다게스탄의 카스피해 해안에 밀려든 바다표범 사체들. /AP=연합뉴스

국제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1900년대 초반 해도 100만 마리 이상이었던 카스피해 바다표범의 개체 수는 7만마리까지 감소했다. 대량 폐사한 바다표범이 카스피해 해안에서 밀려오는 일도 종종 발생했다.

석유 생산이 이뤄지는 카스피해에서

석유 유출로 인한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남획 등이 바다표범의 집단 폐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게 국제환경단체 등의 분석이다.

러시아 당국은 바다표범 사체에 대한 실험·분석을 통해 대량 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파키스탄서 또 석탄 광산 붕괴...“광부 6명 사망”

파키스탄에서 또 석탄 광산 폭발 붕괴 사고가 발생, 광부 6명이 숨졌다고 익스프레스트리뷴 등 파키스탄 매체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 하르나이 지역의 한 탄광 내부에서 인화성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광산의 일부가 무너져 입구가 막혔고 지하 약 400m 지점

에서 작업하던 광부 6명이 갇혔다. 당국은 현장에 구조대를 파견한 후 동료 광부들과 함께 수색 작업을 펼쳤으나 매몰된 6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한 지역 주민은 “구조작업이 매우 늦게 시작되다 광부들은 안전 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당국은 수사 인력을 투입, 구체적인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파키스탄 광산은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안전 수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 폭발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한다.

지난달 30일에도 북서부 카이버-파크툰크와주의 석탄 광산에서 인화성 가스 폭발로 9명이 사망했고, 2019년 7월에도 발루치스탄주에서 비슷한 사고로 9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미군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 검토

국방장관 “준속돼야”...백악관 “국방장관 입장 지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빈 매카시 미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회의에서 미군 백신 접종 의무화 폐지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얻어냈다고 주장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무엇을 얻어냈는지, 국방수권법안(NDAA)에 무엇이 담길지 아느냐”면서 “우리 군의 남성 및 여성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윌리엄 도널드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매카시가 대통령에게 이를 제안했고, 대통령은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이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대통령은 그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NDAA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의무화 정책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줬다”며 “군부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준수시키는 것을 지지한다”고 입장을 분

명히 했다.

회의에 참여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작년 9월 130만 명에 이르는 현역 병력과 80만 명에 이르는 주 방위군·예비군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을 발표했다.

오스틴 장관은 당시 백신을 거부하면 군에서 추방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고, 실제 수천 명의 현역 군인들을 제대시켰다.

공화당 주지사 20여 명은 최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접종 의무화가 미군의 모병 능력을 약화했다며 이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美 5세 아동, 8세 소년이 쏜 총에 맞아 위급 상태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5세 아동이 집에 놀러 온 8살짜리 소년에 의해 총에 맞아 위급 상태에 빠져있다고 미 ABC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지난 3일 발생했으며 총에 맞은 5세 소년은 병원에 옮겨졌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받고 낮 12시 30분에 현장에 도착, 8세 소년이 쏜 총에 5세아가 한발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5세아는 이미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였다.

경찰은 총격 당시 집 안에 최소 한 명 이상의 성인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이나 아직 체포한 사람은 없다.

앞서 한 달여 전 휴스턴 외곽에서는 10살짜리 형이 집안에서 갖고 놀던 총이 발사되면서 8살짜리 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미국내 총기류 사고를 추적하는 비영리 단체인 총기류폭력기록보관소에 따르면 올해 11세이하 총격 사망자는 최소 299명이고 부상자는 648명이라고 ABC 방송은 전했다. /연합뉴스

“돈 안주면 사진 공개”

‘남친 협박’ 베트남女, 철창행

베트남 호찌민의 30대 여성이 한때 사귀었던 외국인을 상대로 밀회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돈을 뜯으려다가 철창에 갇히게 됐다.

5일 현지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이를 전 당 티타오 쩡(30)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현지 공안은 독일인 남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이들이 돈을 주고받기로 한 식당에 잠복해있다가 쩡을 검거했다.

쩡은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후지의료기 PFC-7900

1954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안마의자를 개발한 일본의 명품 안마의자 브랜드

주요기능 : 40마사지롤 / 더블센싱 체형감지 / 자동 다리길이를 조절 / 12단계 강도조절 / 77가지 심층마사지 기술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12종류의 부위별 집중 마사지 / 3가지 부위 집중 스트레칭 / 더블히터 / 21가지 자동코스 / 4개국어 지원 4.1인치 터치스크린 리모컨

후지의료기 JP-870

67년 역사의 일본명품 안마의자 후지의료기 세계 최초 안마의자 개발,일본 의료기기인증

주요기능 : 40마사지롤 / 더블센싱 체형감지 / 트리플모드 에어 마사지 / 5가지 부위 집중 마사지 / 더블히터 / 더블히터 / 4가지의 초강력모드 / 4가지의 릴렉스모드 / 4가지 기본코스

사파헬스케어 SF-5100

꼭 필요한 기능을 빈틈없이 담은 사파헬스케어 SF-5000(에이원)으로 최고의 힐링을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압제마사지 / 9가지 자동코스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램 마사지 / 2중온열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온열마사지 / 전방 슬라이딩으로 공간 절약 / 슈퍼 롱 L스프레임 / 블루투스 연결 / USB충전 지원

사파헬스케어 SF-5000

SF-5000(더 베스트)의 기술력으로 차원이 다른 힐링의 세계를 경험하세요.

주요기능 : 5D압제마사지 / 스마트 AI 체형측정 / 불 히팅 마사지 / 뮤직싱크 마사지 / 종아리 스크램 마사지 / 어깨 에어백 위치 조절 / 발바닥 롤러마사지 / SL프레임 / 전방 슬라이딩 / 듀얼 에어펌프 마사지 / 12가지 자동코스 / 헤드지압 마사지

영무SP Sports ☎ 062)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지번: 백운동 644-33) https://youngmoosp.itpage.kr